

##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9. 30

# 주간 달러/원 동향(9/23~9/27)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준 이사들의 완화적 발언에도 예상보다 비둘기적으로 평가된 BOI 금정위 여파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중국 당국의 부양책 발표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위안화 강세에 동조화되며 하락 전환
- 중반, 미 소비자심리 부진 소식에 따른 연준 추가 빅컷 베팅에도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와 커스터디 매수에 1330원대 초반에서 하단 지지됨
- 후반, 중국의 유동성 지원 검토 소식에 경기 부양 기대가 재차 높아진 가운데 국내 증시 호조 속 원화 강세에 1320원대 진입. 이어 주 후반, 위안화 강세에 더해 일본 신임 총재 선출 이후 BOI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를 반영한 엔화 강세가 나타나자 1,310원대 후반으로 하락 마감

## 달러/원 전망

- 미국 PCE 물가와 소비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연준의 통화완화 경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달러 약세에 탄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중국의 지속적 경기부양 흐름에 따른 국내 외수회복 영향 등이 수급에 긍정적일 것이란 측면도 원화 강세에 영향 요인으로 판단
- 다만,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가능성 등은 원화 환율 1,300원대 초반 안착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 있는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3.0	1,337.7	1,315.5	1,318.6	-14.4

## 예상거래범위

1,300원 ~ 1,315원

# 엔·유로화 동향 (9/23~9/27)



##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9월 PMI가 위축세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에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며 유로화는 약세로 출발. 이어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자 강세로 전환
- 중반, 프랑스 재정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약세로 전환
- 후반,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가 재차 고조됨에 따라 리스크온 분위기 속 유로화 가치 반등. 이어 주 후반, 프랑스, 스페인 물가지수 둔화에 따른 ECB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며 약세로 재차 전환 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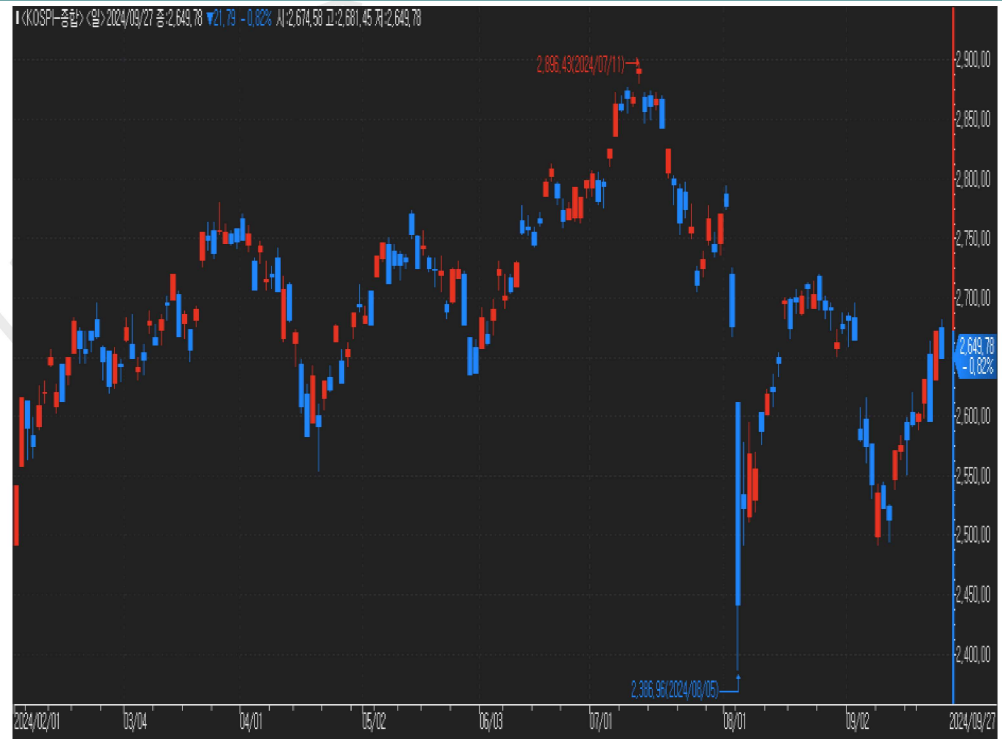
## 엔화 동향

- 주초,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더해지며 엔화는 강세로 출발. 이어 미 소비자신뢰지수 부진에 따른 연준 빅컷 기대 강화와 달러 약세에 추가 강세를 시현
- 중반, 추가 금리인상 시기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강조한 우에다 BOJ 총재 발언 이후 비둘기 BOJ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약세로 전환
- 후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유입되며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소폭 약세. 이어 주 후반, 금리인상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이시바 차기 일본 총재 선출로 BOJ 추가 긴축 전망에 힘이 실리자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163	1.1214	1.1083	1.1164	+0.0001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9	146.5	142.1	142.2	-1.7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23~9/27)



##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국채금리의 전일 상승 움직임을 반영하여 출발한 국고채 금리는 레벨 부담 등으로 조정 움직임이 완연한 모습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수 전환 등으로 금리 상승 추세 다소 제한된 양상. 이어 미국 제조업 지표 등 주요 지표 부진과 연준 당국자들 간 의견이 엇갈림을 보인 양상 속에 대통령의 통화정책에 대한 도비시 언급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아시아 장에서의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는 보합권 혼조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큰 변동성 없는 장세였지만, 오후 경 신성한 금통위원의 상당한 비둘기적 간담회 내용이 전해지며 국고채시장 급격한 강세 속에 금리 하락 추세 전환. 후반 들어, 미 연준 당국자의 비둘기적 발언에 이은 한은의 비둘기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시장 판단 등이 금리 하락을 견인한 가운데, 주 후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와 프랑스 물가 발표 등을 반영하며 상승 전환 속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코스피는 미국 빅컷 이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장세를 보인 가운데 밸류업 지수 공개를 앞둔 금융 업종들의 강세 속에 2,600대를 회복하며 출발. 이어 중국 정부의 지준율을 낮추는 경기부양책 소식 등으로 상승 추세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중국 경기부양책 영향과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강세 등이 반영되며 강세 흐름 보이던 코스피는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 매물 출회 등으로 7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2,600선을 하향
- 후반 들어,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호실적 등에 따라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 보이던 가운데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7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등으로 큰 폭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간밤 미 증시 강세에도 중국 경기 전망과 일본 총리 선거 결과에 대한 경계감 등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정받는 가운데 하락 전환하며 마감